



보도	배포시	배포	2024.12.4.(수)		
담당부서	금융시장안정국	책임자	국 장	이 진	(02-3145-8170)
	금융시장총괄팀	담당자	부국장	김정훈	(02-3145-8180)

금감원, 확대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

- 금융감독원은 12.4일(수) 오전 이복현 원장 주재로 모든 임원이 참석한 확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비상계엄 이후 금융 상황을 점검하고,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.
- 지난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시장에서는 환율이 일시 급등하고 한국 ETF도 급락하였으나, 비상계엄 해제조치 이후에 곧 진정되었고
 - 금일 국내 주식시장의 하락 폭이나 일중 변동폭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며, 원화가치는 오히려 상승하였다.
- 이복현 원장은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나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, 모든 부서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위기대응 태세를 갖추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.
 - ①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매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, 이상징후 탐지 시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필요한 모든 안정조치 실행
 - ② 외은지점 등 해외 투자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량한 대외건전성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통
 - 금융권 외화조달 여건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, 금융사별 외화유동성 변동 추이를 밀착 점검
 - ③ 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, 필요시 대출 만기연장, 상환유예 등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 지원
 - ④ 투자자들의 불안심리에 편승한 허위·풍문 유포행위에 대해 증선위, 거래소, 검찰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 대응